

당연히 해야 할 나의 일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하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소식은 신천지가 바이러스를 퍼뜨린 주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모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비해 작은 공간에 뭉뚱이 같이 모여 몇 시간을 있었으니 병균이 마음껏 퍼졌던 것이다. 그들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자신들 나름대로 전도한다며 여기저기에 간첩이 침투하듯 다녔으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일들로 생각이 많은 가운데 지난주 Los Angeles를 자동차로 다녀오게 되었다. 오고 가는 길에 산꼭대기 휴게소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이 상을 퍼 놓고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 80도가 넘는 더운 날 오후 LA 한인 타운 한 길거리에 60대 남자와 여자가 상을 퍼 놓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고 소리친다. 또 다른 곳에서 2명이 자전거를 타고 가슴에 검은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몰몬이 길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도 보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회복되기를 기도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종교를 알리는 부지런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단의 모습이고 마귀의 일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아닌가? 과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앞세워 전도는 할 수 없고 전도가 되지도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 말하며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천지가 사람들의 나이와 위치를 상관하지 않고 전했을 때에 추종자들이 3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인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큰 소리로 고쳐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과연 칭찬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 1장 3절)을 통하여 사도바울의 고백을 들려주신다.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전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이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또한 삶으로 선포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기쁘고 행복해서 거기에 빠져있을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세상이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때이기에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길거리에 서서 상을 퍼 놓고 전도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내가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어떠한 이유든 믿음을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은혜를 말하며 하나님 앞 예배로 그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도하며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